

행복한 섬김



(사)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교회봉사단

예비호 2009년 10월호

주소 110-736 서울특별시 종로구 언지동 136-46, 기독교회관 705호
전화 02-747-1225, 팩스: 02-764-1225
홈페이지 www.servekorea.org
발행인 김삼환 편집인 이상화



하나 된 섬김의 길

“우리는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

긴 설명과 소리높인 웅변, 그리고 휘황한 전시물은 이제 식상하다.

세상은 우리에게 푹푹히 목격할 수밖에 없는 몸짓을 보여 달라고 요청한다.

주님은 사랑의 섬김 그 자체를 보여주셨다. 하늘을 포기하고 낮은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주님의 모습대로만 좇아간다면 하나 되는 일은 멀지 않다. 사회적 섬김의 길을 걷는 이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하나 됨은 더욱 커져갈 수밖에 없다. 한국교회가 하나 된 섬김의 정신을 가지고 진정한 이웃 사랑의 본을 보일 때 황폐한 이 땅은 치유되고 회복 되어 희망의 꽃을 피우게 될 것이다.

하반기 사업계획



한국교회와 지역사회 변화 세미나

- **주제** 한국교회와 지역사회변화
- **일시** 2009년 10월 29일(목) 14:30 ~ 15:30
- **장소**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소강당
- **대상** 목회자 및 기독교단체, 자원봉사센터 및 자원봉사단체, 학계, 자원봉사자 등
- **기조강연** 한국교회봉사와 지역사회 - 조흥식교수(서울대학교)
- 좌 장** 김동배교수(한국교회봉사단 공동대표, 연세대학교)
- 발 제**
- 한국교회 사회봉사의 전문성 강화 - 김기원교수(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 한국교회 사회봉사의 공적체계 구축 - 정무성교수(숭실대학교)
- 지역교회와 자원봉사센터의 네트워크 - 이성록교수(한국재활복지대학교)

지회조직 활성화

- **정기 간담회** 한국교회봉사단과 전국지회의 임원들이 함께 모여 현황과 사업 논의 및 각지회 정보 교류
- **지역별 간담회** 지회단위의 모임주선으로 지회소속 교회나 기관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모색

가정주부 응급처치 교육

- **목적** 우리나라 돌연사의 70%가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일어나는 돌연사에 대한 예방 대책은 전무하다. 어린 자녀와 노 부모 등을 돌보는 가정주부들에게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여 가족의 불행 을 막을 수 있게 하고자 함.
- **일시** 11월 까지 매월 1회
- **장소** 덕수교회, 버클랜드교회 외
- **대상** 가정주부
- **내용** 이론교육(기초의학),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등

* 응급처치교육 수강을 원하시는 교회나 단체는 문의 바랍니다. (02-747-1225, 담당: 양지선 부장)

택시기사 사회 안전요원화

- **목적** 응급환자를 가장 많이 접하고 기동성이 좋은 택시기사들에게 적극적인 응급환자 구급활동으로 생명사랑실천 운동을 선도하고자 함.
- **대상** 수원시 택시기사
- **내용** 기획 및 조사, 시범교육, 발대식



한국교회가 이웃과 함께하는 2009 거리의 성탄절

- **일시** 2009년 12월 24일(목) 11:00 ~ 14:00
- **장소 및 규모** 서울역, 영등포역, 청량리, 부산역, 대구역, 대전역, 수원역, 안양역 등 노숙인 10,000명
- **내용** 개회식/ 문화행사/ 선물과 급식제공

2009 성탄특별기획 방송 제작

- **취지** 해외의 난민들을 섬기는 교회의 모습들을 조명하여 기독교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재고하며,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고 교회의 사명과 복음에 대한 소명을 재발견하는 계기로 삼는다.
- **일시** 성탄기획-2009년 12월 22일 ~ 26일 중 2회 방영
방학기획-2010년 1월 중순 1회 생방송 방영
- **내용** 해외 난민촌과 거리의 아이들, 국내 방학에 밥을 굶는 아이들의 실태 내용을 담아 한국교회봉사단-KBS-국민일보가 성탄특별기획 다큐멘터리를 공동 제작

서해안 원유유출사고 2주기 기념행사

- **취지** 서해안 피해 주민들의 심리적 변화와 마을공동체의 변화를 담아내면서 피해 주민들에 대한 대책을 다시금 공론화하고, 성탄절을 맞아 주민위 로잔치를 통해 사회통합을 도모
- **대상** 서해안 원유유출 피해 지역 중 의항, 학암포, 천리포 주민 등
- **내용** 실태조사 및 발표회, 마을잔치



교회는 사회에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오정현 목사 | 사랑의교회 담임, 한국교회봉사단장

1960년대 초부터 세계의 복음주의자들은 세계복음화국제회의(1971년)를 위시한 여러 국제회의에서 복음 전파와 사회적 책임관계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1982년에 발표된 보고서(복음 전파와 사회적 책임: 복음주의적 참여)를 통해 “복음은 뿌리요, 복음 전파와 사회적 책임은 모두 그 열매”라는 의견에 일치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사회에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 사회와 교회의 관계를 가장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교회는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은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던” 교회였습니다(행 2:47). 우리나라에서 교회가 처음 세워지고 뿌리를 내렸던 20세기 초반, 사회에 대한 교회의 기여와 역할은 초대교회의 그것

과 크게 다르지 않



“복음 전도와 사회 봉사라는 양 날개의 균형을 잡고 사회의 그늘에 있는 사람들의 손을 이끌어 복음과 사랑의 빛 가운데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은 모습이었습니다. 굶주린 자들을 먹이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며,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열어주고, 소외된 자들의 다정한 이웃으로 곁에 있었습니다.

사회 활동은 복음 전파의 결과인 동시에 복음 전파에 이르게 하는 다리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헌신하는 만큼이나 사회에 헌신해야 합니다. 사회에 대한 헌신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생동적 변화를 일으키는 출발점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세상의 영적 풍향과 사랑의 온도를 결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영적 기후가 더 이상 불신과 불의와 불만으로 그늘지고 냉랭해지지 않게 하려면 복음 전도와 사회 봉사라는 양 날개의 균형을 잡고 사회의 그늘에 있는 사람들의 손을 이끌어 복음과 사랑의 빛 가운데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섬김과 희생과 위로의 마음으로 어려운 이웃을 향해 내미는 작은 손길이 사랑의 큰 날갯짓이 되어 그늘지고 냉기서린 사회의 구석 구석을 따뜻하게 만드는 강력한 훈풍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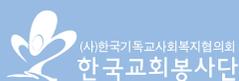
부터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웃을 섬기고 아픔을 나누기 위함”이라는 자끄 엘룰의 말은 교회가 시대의 아픔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음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교회가 시대의 아픔을 품고 섬기는 일은 책임이 아니라 특권입니다. 섬김과 희생은 나 자신의 우선순위와 필요를 고통스럽지만 절제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위한 고통스러운 절제가 이웃을 위한 사랑으로 꽃피울 수 있다면 이것처럼 엄청난 부가가치를 남기는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섬김과 나눔의 사명이 특권이요 축복임을 믿고 제대로 감당할 때 교회는 사회에 빛과 소금의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초대교회와 같이 은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 되어 섬기고 섬김으로 하나 되자

희생과 사랑 양보와 포용의 정신이 가득 넘쳐
꿈과 희망이 싹트고 열매 맺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국교회봉사단에 바란다



어떤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

가난한 이웃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복음적 사회봉사활동은 구호와 개발과 옹호사업이 모두 포함되는 통전적 사역입니다



박종삼 목사 | 월드비전 회장

주의 특별한 성령이 20세기 말 한국 교회에 임하시 우리나라, 북한, 지구촌에 흩어져 있는 가난한 이웃들에게 복음을 선포

하고 선포된 복음을 실천하는 사회봉사를 통한 생명 섬김의 선교활동을 하도록 한국 교회를 택하시 세상에 내 보내 주셨습니다.

한국 교회는 더 이상 “누가 내 이웃인가?” 라는 질문 대신 “우리의 가난한 이웃을 위해 우리가 어떤 이웃이 되어야 하겠는가?” 라는 책임성 있는 성숙한 질문을 스스로 던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한국 교회들이 가난한 이웃을 위해 사회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이런 생명봉사활동들이 분명한 기독교의 정체성을 나타내지 못하고 세상의 세속적 사회복지 프로그램과 큰영적 차이성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사회봉사가 기독교 영성을 상실하게 될 경우 하나님의 사랑을 가난한 이웃들에게 전달하여 새 생명과 새 소망을 갖게 하는 영적 선교활동도 쇠퇴하게 됩니다.

교회 사회봉사활동은 주로 구호, 개발, 권익옹호(advocacy)라는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구호활동은 가난한 사람의 하루 생활만을 만족시키고, 개발활동은 1년의 생활을 만족시켜줄 수 있지만, 권익옹호를 중

심으로 하는 봉사활동은 가난한 이웃들에게 정의롭고 삶의 기회를 창출시키는 세상을 함께 만들게 함으로써 일생의 행복을 보장해 준다고 합니다.

가난한 이웃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복음적 사회봉사활동은 구호와 개발과 옹호사업이 모두 포함되는 통전적 사역입니다. 그런데 교회 사역이 구호나 간단한 개발 사업에만 머무른다면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선포되지도 못하고 실현되지도 못합니다. 예수님의 사회봉사는 ‘구호, 개발, 옹호’ 활동이 함께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난한 이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무책임한 사람들에게 “자기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며, 그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또한 “그 생명을 지켜주는 능력을 갖추는 일에 힘쓰고” 그리고 “생명을 섬기는 가난한 이웃 봉사에 함께 참여하는 책임 있는 인간이 됩시다” 라고 호소하고 도전하는 선지자적, 예언자적 봉사활동이 곧 기독교의 정체성을 지닌 교회의 사회봉사이며 사회선교라고 생각합니다.



낮은 자의 아름다운 이름에는?

봉사라는 매체로 한국 교회를 일치와 연합으로 묶어내어 사회 속에 교회의 성숙한 모습을 만들고 드러내는 귀한 사역을 기도합니다



조상기 목사 | 예정통합 사무총장

부활절연합예배, 한국교회 대부흥 100주년 기념대회에 이어 서해안 원유 유출 사고가 디아코니아로 한국 교회가 하

나 된 아름다운 이름 ‘한국교회봉사단’ 은 교회의 자긍심이자 사회의 칭찬거리였습니다.

봉사와 관련하여 수많은 기관과 단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봉사단은 후발주자로서 이미 선두에서 재해구호와 사회복지와 자원봉사의 성격으로 달리고 있는 단체들과 경쟁하는 하나의 봉사단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내부를 향하기보다는 한국 교회의 대사회적인 이미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교회봉사단은 봉사라는 매체로 한국 교회를 일치와 연합으로 묶어내어 사회 속에 교회의 성숙한 모습을 만들고 드러내는 귀한 사역을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업적과 이름에 연연하기보다는 섬김의 자세로 지지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며, 봉사 관련 교단의 관계 부처와 유관 단체들과 함께하기 위해 앞서는 전문성과 중합성의 헤안이요 청되며, 사회 유관 단체들과의 원활한 교류가 필요해 보입니다. 사회를 향한 한국 교회의 멋진 얼굴로서의 한국교회봉사단을 기대합니다.

사랑을 베푸는 자 오늘의 천사인가?

한국교회봉사단은 작은 천사들의 모임입니다. 고통에 신음하는 이웃에게 살며시 다가가 손을 잡아줍니다



임한창 | 국민일보 종교국장

천사의 손길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까?

미국 ‘월드뉴스’ 란 잡지가 ‘천사의 손길’ 을 체험한 사람

들의 이야기를 특집으로 다루었습니다. 미국 텍사스 주의 한 간호사는 길을 걷다가 갑자기 큰 물체가 행로를 막아 멈춰 섰습니다.

그 순간, 브레이크가 파열된 자동차가 그 앞을 질주해 지나갔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한 병사가 보초를 서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 뒤돌아보는 순간, 총알이 얼굴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와 섭리 속에서 살아가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남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의 천사들입니다.

슈바이처가 운영하는 아프리카 랑바레네병원에서 굶은일을 도맡아 하는 미모의 한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리안 프레밍거. 헝가리 귀족의 딸인 그녀는 재색을 겸비한 당대 최고의 여성이었습니다. 춤과 노래와 연주에 능통한 그녀는 연극무대의 신데렐라였습니다. 첫 번째 남편은 의사였고, 두 번째 남편은 영화감독이었습니다. 이 화려한 여성이 어느 날 찬송기를 들고 회심했습니다.

“나의 삶은 허구였어. 남을 위해 봉사하지 않는 인

생은 무가치한 것이야.”

프레밍거는 즉시 아프리카행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슈바이처가 세운 병원에서 흑인들을 위해 20년 동안 봉사하다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녀의 유언은 간단했습니다.

“남을 위해 봉사하는 삶이 진정한 행복한 것을..”

한국교회봉사단은 작은 천사들의 모임입니다. 고통에 신음하는 이웃에게 살며시 다가가 손을 잡아줍니다. 페놀이 서해를 휘감을 때, 식수가 없어 강원도 주민들이 목마름을 호소할 때, 희망을 잃은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신음할 때 소문내지 않고 달려가 줘서 감사합니다. 개교회가 아니라 ‘한국 교회’ 의 이름으로 천사의 사랑을 베풀어주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헌신이란?

주위의 가난, 질병, 차별, 폭력 등으로부터 오는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보살피는 행동입니다



김동배 교수 |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봉사단은 기독교인의 마음에 내재되어 있는 봉사심을 잘 조 직해 내야 합니다. 도덕적 존재 로서의 인간은 그 마음속에 기 본적으로 측은지심이 있어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심리적 특성이 있습니다. 특 히 기독교인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신을 희생하신 예 수를 닮아야 한다는 당위성과 의무감이 있습니다. 이러 한 봉사심을 더 많이 그리고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를 조직하고 체계화하는 일이 필 요합니다.

개인적인 봉사활동도 필요하지만 단체적인 봉사활 동은 좀 더 큰 사회문제를 해결하여 우리 사회를 바람 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봉사를 자

신의 연장(extension) 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봉사를 통해 자기가 바라는 이상 사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 니다. 기독교인이 꿈꾸는 이상 사회란 무엇일까요? 진 리를 가슴에 품고, 정의와 자유와 평등이 이루어지는 사회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주위의 가난, 질병, 차 별, 폭력 등으로부터 오는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민감 하게 반응하며 보살피는 행동입니다. 따라서 봉사단은 인간성 회복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앞당기는 일 에 사람을 모으고 교회를 조 직하는 단체로 발전해 야 할 것입니다. 그러 나 세상은 우리가 꿈 꾸는 이상 사회로부 터 점점 멀어지려는 경향이 있으니 이를 어찌해야 할까요?



시대적 명령이란?

우리 한국교회봉사단이 교회 안에 올바른 섬김의 토양을 만들기 위하여 섬김 이전에 봉사자들을 훈련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전우 박사 | 한동대 선린의료원 장, 전 한국기독교의료선교협회장

시대에 시급한 하나님의 명 령, 한국교회봉사단!

한국 교회에 대한 불신자들 의 질타가 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요? 한국의 아동과 노인복지사역, 소년소녀 가장 돕기, 다문화 가정 돕기, 탈북 새터민 돕기, 노숙자 돕기 등 모 든 구호와 봉사의 일에 어느 종교단체보다도 기독교가 월등히 많은 봉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여전히 불 만이 높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우리 자신의 모 습이 부각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은 섬김의 리더십이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교회 가 섬김으로 민족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한 영향력이 민족 속에 나타나 야 한다는 전제를 갖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삶이 전도 매체 곧 '전도지' 입니

다. 우리가 섬김을 나눌 때 휴머니티(humanity)가 중심 인가 아니면 크리스체너티(christianity)가 중심인가를 구 분해서 행동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봉사팀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여기에는 훈련이 필요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봉사단이 교회 안에 올바른 섬김의 토 양을 만들기 위하여 섬김 이전에 봉사자들을 훈련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나라가 기름 유출로 해안이 오염되었을 때 국 민이 동원되어 돌맹이 하나하나를 닦아 단시일에 해안 오염을 걷어내고 청정 해안을 만든 나라가 있습니까? 이 일에 한국 교회가 주축을 담당하고 지금까지 이 일 을 담당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섭리입니다.

이기적을 바탕으로 한국교회봉사단이 설립되고 활 동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시대적 명령이라고 생 각됩니다. 이 봉사단을 중심으로 모든 교회가 일치단결 하여 참된 섬김으로 민족을 인도하는 길라잡이가 되기 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나눔, 삶을 빛나게 하는

주님은 기꺼이 주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시간이나 돈뿐 아니라, 보살핌과 배려를 나눌 때 당신의 삶 또한 풍성해질 것입니다.



'느그러운 사람들의 세계는 갈수록 커지고, 인색한 사람들의 세계는 갈수록 작아진다'

잠언 11장 24절

한국교회봉사단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6-46 기독교회관 705호

02-747-1225

한국 교회 2010년 복지예산 향방에 주목해야 한다.

복지예산의 중앙 환원을 적극 주장하되 이를 위한 건강한 토론과 협의 과정이 필요한 시점

신용규 목사 | 한국교회봉사단 사회복지위원장,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사무총장



최근 우리나라 사회복지계의 핫이슈는 지난 2005년부터 올해까지 한시법으로 시행되고 있는 복지예산 지방이양에 대한 향방이다. 본래 복지예산 지방이양은 지방정부의 복지재정에 대한 자율성 신장과 정부보조금의 효율성 증대, 나아가 지역 현실에 맞는 복지 계획의 수립과 지역민의 주체적인 예산 수립에의 참여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복지예산의 증대를 꾀하려는 의도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사회복지 시설, 즉 현장에서는 사회복지 예산을 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책임회피, 지방정부간 혹은 복지영역 내 부문간 불평등 심화 등 심각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복지예산 지방이양은 복지문제 해결의 주체가 누구에게 있는가의 차원에서 보면 결국 자국민의 복지에 대한 균형적인 발전과 책임 그리고 주체적인 역할에 대한 중앙정부의 회피로 볼 수밖에 없다.

“

사회복지계는 복지예산의 중앙 환원을 적극 주장하되 이를 위한 건강한 토론과 협의 과정이 필요한 시점이며 국내 최대의 복지영역을 감당하고 있는 기독교 사회복지계의 집중적인 관심과 지지가 요구된다.

”

건강한 토론과 협의 과정

복지예산 지방이양에 따른 문제점은 수없이 지적되어 왔지만 상기하는 차원에서 강조하자면, 첫째 사회복지시설 운영비의 삭감, 혹은 동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국 사회복지관의 정부보조금 추이를 보면 재정자주도와 보조금의 상승률이 대략 비례추세를 알 수 있다. 이는 자주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상승 폭이 낮고, 자주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비교적 상승폭이 높으며, 특히 2004년도와 복지예산 지방이양 원년인 2005년도, 완전한 지방이양이 이루어진 2006년도를 비교하면 더욱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재정자주도가 열악한 지역의 종사자와 수도권 지역의 종사자는 복지예산 지방이양 이전에도 격차가 존재했지만 지방이양 이후 점차 심화되고 있는 양상이며, 나아가 비정규직 양산, 고용의 불안정, 전문성 약화 등의 문제들도 확산되는 결과를 조정·유기하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어 사회복지 종사자 간에 위화감을 조성 혹은 방조하고 있으며, 순기능적인 사회복지 전문성의 공유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셋째 모든 사회복지 정책은 예산과 직결되기 때문에 소위 ‘돈줄’을 쥐고 있는 지방권력의 횡포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사회복지의 가치나 신념에 반하는 지방권력에 줄서기를 하는 한심한 양태를 유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복지예산 지방이양이 지방정부의 자치권 강화보다는 역기능으로서 정치적인 메커니즘에 따라 악용될 소지가 농후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넷째 복지예산 지방이양이 지역간 상호 배타적 복지서비스 양상을 방조·유도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사회복지의 최우선 가치인 공공성을 도외시하는 후진적 공공서비스의 전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민간부문에 대한 지나친 의존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소위 ‘복지민영화’ ‘복지시장화’의 미명하에 복지시설에 무한경쟁을 강요하다 보니 민간영역은 예산 경쟁력에 따라 평가되는 단순 구조로 재편되어 ‘전시복지’ 경향을 가속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복지예산 지방이양의 종료 시점에서 복지예산 중앙환원 운동에 한국 교회가 적극 참여해야 할 당위가 명확하다. 결론적으로 사회복지계는 복지예산의 중앙환원을 적극 주장하되 이를 위한 건강한 토론과 협의 과정이 필요한 시점이며 국내 최대의 복지영역을 감당하고 있는 기독교 사회복지계의 집중적인 관심과 지지가 요구된다.



자원봉사활동 성숙 위한 교회의 역할

자원봉사의 근본적 가치와 실천 원리에 대한 전문적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다면적 네트워크도 구축해야 한다

이성록 교수 | 한국교회봉사단 자원봉사위원장, 국립 한국재활복지대학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해야 하는 책무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한국 교회는 기독교의 진리를 깨닫고 신앙적 신념을 소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삶의 에너지가 사회화되거나 구조적 혹은 환경적 변화를 실현하기 위해 외연화하는 것을 매우 위험한 일로 여겨왔다. 따라서 교회는 성도들의 신앙의 발로와 에너지를 교회 영역 안에서 사용되도록 제한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그 결과 원하던 교회의 성장은 이루어졌으나 고립과 단절로 말미암은 사회적 영향력의 상실은 결과적으로 '거대한 교회의 왜소화'라는 기형적 모습을 드러내기에 이르렀다. 즉 한국 기독교는 양적 성장에 지나치게 몰두한 나머지 교회의 사회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였으며, 교회가 비교적 많은 물적·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기능을 소홀히 함으로써 언행이 일치되지 않는 '립 서비스' 집단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웃과 사회에 대한 책임

물론 이러한 한국 교회의 기형적 양상에 대하여 내부적 각성과 갱신의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즉 교회 갱신, 사회 참여, 사회선교, 기독교 공동체 운동 등 방향 제시가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내적으로는 이러한 흐름이 본류를 형성하지 못하고 하나의 분파적 흐름으로 자리매김 되었을 뿐이며, 외적으로는 그나마의 노력마저도 사회과학적 실천방법론의 부재라는 한계를 드러내면서 사회적 주변부에 머무르는 데 그치고 있다.

최근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및 시민사회의 의식 변화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가중시켰고, 동시에 타종교의 적극적인 사회봉사 확대로 말미암아 교회의 사회적 영향력이 위축되는 위기를 목도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 교회의 사회참여와 사회봉사는 더 이상 선택적 과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21세기 한국 교회는 이웃과 사회에 책무를 다하는 교회로서 거듭나야 할 시점에서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 교회에는 희망이 있다. 무엇보다 교회가 지니고 있는 인적 자원은 사회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문제는 이 인적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다. 결국 교회의 인적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는 목회자들의 결단에 달려 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실적 과제는 목회자들이 주도할 것이 아니라 평신도들의 리더십을 육성함과 동시에 이들을 중심으로 실천 체계를 구축하여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자원봉사 영역은 양적 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질적 측면에서 변질되어 가는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필자는 여기에 교회의 역할이 집중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한국교회봉사단과 연계하여 자원봉사의 근본적 가치와 실천 원리에 대한 전문적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다면적 네트워크도 구축해야 한다. 한국교회봉사단도 더 이상 상징적 존재가 아니라 실질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아무쪼록 교회들이 우리나라 자원봉사의 질적 성숙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역량을 구축하는 일에 시급히 착수하기를 기대한다.



“

자원봉사의 근본적 가치와 실천 원리에 대한 전문적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다면적 네트워크도 구축해야 한다. 한국교회봉사단도 더 이상 상징적 존재가 아니라 실질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



회원교회 이모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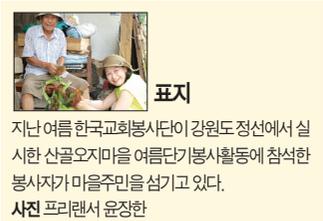


소식 하나 교회소식

★ **분당샘물교회** 무료 급식소 '사랑마루' 사역 활발
성남의 일용직 근로자들을 섬기기 위한 사랑의 5% 무료급식 지원 사역이 9/15(화) 새벽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주3회(화,수,목) 일지리를 찾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근로자들에게 따뜻한 아침 식사 한 끼를 제공하는 이례적인 사역에 기도를 요청한다.

★ **분당 만나교회** 사랑의 반찬 나눔 전개
상반기 동안 21회에 걸쳐 총 12,500개의 도시락을 전달할 사랑의 반찬 나눔이 9월 초부터 다시 시작하였다. 미지립교회와 성남지역의 차상위계층, 소외계층에게 반찬을 통해 사랑을 담아 전달하는 이 사역은 섬기는 교회와 목회자들에게는 힘이 되고, 음식을 드시는 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기회가 되며, 봉사자에게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섬김의 계기가 되고 있다.

※ 교회 또는 기관에서 「우리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면 사무국(02-747-1225)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소식 둘. 회비/후원금을 납부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가나다순서입니다.

★ 회비

- 고명성 목사(추점교회)
- 구자영 목사(안성성결교회)
- 김동배 교수(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 김득연 회장(동성진흥)
- 김민철 원장(전주예수병원)
- 김양원 목사(신망애복지재단)
- 김원호 목사(석삼침례교회)
- 김정규 장로(선한사마리아인운동본부)
- 김종생 목사(한국교회봉사단 사무총장)
- 김준수 권사(천안하늘중앙교회)
- 류중훈 교수(한세대 사회복지학과)
- 류태선 목사(웅산교회)
- 박종언 목사(예장합신 총무)
- 박홍자 장로(한국급식협회 회장)
- 백태중 목사(강동교회)
- 사재일 목사(원주영강교회)
- 손달익 목사(서문교회)
- 손인웅 목사(한국교회봉사단 이사장/덕수교회)
- 송기식 목사(수원성결교회)

- 송중완 목사(수원삼일교회)
- 양해규 목사(수원중앙교회)
- 오영택 목사(월드비전교회)
- 오정현 목사(사랑의교회)
- 오정호 목사(새로남교회)
- 오진석 목사(하나성결교회)
- 우창록 변호사(울촌법무법인)
- 이경희(운영노) 전도사(하늘중앙교회)
-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 이만식 교수(장로회신학대학교)
- 이봉관 회장(서희건설)
- 이순 목사(천안중앙교회)
- 이은화 권사(경신복지재단 이사장)
- 이재원 관장(종로종합사회복지관)
- 이태훈 소장(수원동부성폭력상담소)
- 유인석 목사(과천소망교회)
- 장운제(한미자) 목사(한국복지목회협의회)
- 장현승 목사(과천소망교회)
- 전윤원 목사(석천광명교회)
- 전성원 장로(한국기독교총연합회 부회장)

- 전현표 목사(상동사랑교회)
- 정명철 목사(도림교회)
- 정성진 목사(거룩한빛광성교회)
- 정우담 교수(예성총회 사회복지부)
- 정필도 목사(수영로교회)
- 조남선 사무총장(한국치매가족협회)
- 조홍식 교수(서울대 사회복지학과)
- 지형은 목사(성락성결교회)
- 최현태
- 최희범 목사(한국교회봉사단 상임총무)
- 추연호 목사(은파교회)
- 황형택 목사(강북제일교회)

★ 후원금(지정후원)

- 강북제일교회, 광주은광교회, 샘물교회, 우리들교회
- ※ 이름(직함, 소속)이 잘못 기재되었거나 누락된 분은 이계시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무국(02-747-1225)으로 연락주시면 즉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봉사단의 사업기금 마련을 위한 교회, 단체, 개인 회원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월회비 임원/이사/실행위원(20만원 이상), 중앙위원(10만원 이상), 회원(5천원 이상)

후원금 한국교회봉사단의 사업을 후원해 주실 분들은 액수에 관계없이 상시 후원가능합니다.

방 법

1. CMS(자동이체) : 02-747-1225로 연락하여 신청 바랍니다.
2. 온라인이체 : 신한은행 100-022-688472 (예금주) 사단법인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계좌로 송금 바랍니다.

소득공제 보내주신 후원금은 연말정산시 법인세법 제 24조 소득세법 제 34조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